

“불교적 프로그램 운영할 것”

바라밀실버하우스 10월 15일 개원

광주에 불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했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교)은 10월 15일 노인전문요양시설 바라밀실버하우스 개원식을 개최했다.

바라밀실버하우스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67-9번지 일대에 지상 2층, 지하1층 총 560평 규모 시설로 세워졌다. 노인전문요양원 60명, 단기보호 20명, 주간보호 20명, 방문요양 80명이 수용 가능하다.

개원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현지 스님(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장), 무이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전갑길 광산구청장, 강박원 시의회의장, 김성이 前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벌려준 민간위탁 시설에 의존해 정부 지침에 따라 피동적 복지사업이 아닌 불교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광주 바라밀실버하우스 개원 기념 컷팅 장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은 “바라밀실버하우스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67-9번지 일대에 지상 2층, 지하1층 총 560평 규모 시설로 세워졌다. 노인전문요양원 60명, 단기보호 20명, 주간보호 20명, 방문요양 80명이 수용 가능하다. 개원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현지 스님(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장), 무이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전갑길 광산구청장, 강박원 시의회의장, 김성이 前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벌려준 민간위탁 시설에 의존해 정부 지침에 따라 피동적 복지사업이 아닌 불교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민들의 안식처 되고파요”

원각사 7080음악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11일 원각사 마당에서 ‘추억의 7080 가을음악회’와 <대발해>의 작가 김홍신씨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홍신 작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이때에 발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오늘날 한국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발해>가 작은 보탬이 되고, 국민들에게 발해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와의 만남에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을 포함해 광주지역 대표적 가수인 바위섬의 김원중씨와, 남성포크 트리



10월 11일 ‘추억의 7080 가을음악회’에서 ‘소리노리’가 공연하고 있다.

오 ‘소리선 사람들’,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등이 공연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오준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찰공간이 작은 힘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5회를 맞은 이번행사는 광주의 대표적 축제로 50만명이 참여하는 중장로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서 각종 차 선보인 녹향제 열려

단풍과 차로 유명한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에서 10월 11일 녹향제가 열렸다.

내장사와 정읍지역 차(茶)인 모임(사)샘골 다례원(이사장 정기진)이 공동개최한 녹향제는 행위에술가 한영애씨의 길닦음 공연을 시작으로 동희 스님, 범필 스님, 일구 스님의 영

산재, 현공다례와 대전방송국 금란5중주 등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경남 의령(말차)을 비롯해 산청(홍차), 전북 남원(원차), 임실(원차), 정읍(황차), 완주 송광사(백차) 등 6대다류 시음회와 들자회도 마련돼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인격가치 가장 소중”

설정 스님 치명자산 성지 특별미사서 법문

지리산부터 묘향산까지, 진정한 소통을 위해 오체투지순례단이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한지 38일째다. 설정 스님(수덕사 주좌)이 오체투지 현장에 찾아 10월 10일 전주 대성동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 특별미사에서 강연해 눈길을 끈다.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처형된 호남에 처음 천주교를 전파한 7명의 유적이 안장된 곳이다. 특별미사는 ‘사람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오체투지 순례단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 외에 강연한 설정 스님, 신부 수녀님 등 70여 명의 대중이 함께 했다.

설정 스님은 “종교화합과 생명평화의 길” 주제 특별강론에서

“치명자산 성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체투지의 정신을 되새기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최근의 종교편향 문제는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편향한 행동이며 사람을 평등하지 하지 않는 것. 삶의 평화를 깨는 것”이라 짚었다.

스님은 “물질은 가장 하위 가치로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와 삼라만상을 통일시키는 생명가치와 인격가치”라 주장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님은 “계중간, 노사간, 국민과 정부간, 종교간 신의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오체투지의 진



10월 10일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에서 설정 스님이 특별 강연을 했다.

정한 정신은 정성스러움과 공경, 신의 원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가치 창조에 있다”며, “참생명, 평화, 사랑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설정 스님 법문 전 오체투지 순례단과 대중들은 치명자산 성지 주변도로를 3배퀴 순회하고 가자금 3중주 공연, 시낭송,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늘은 산사에서 추억 만드는 날...

임실 제6탄약창 장병·가족들 가을 산사나들이

군장병들이 부대 울타리를 벗어나 가을 산사를 찾았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 12일 임실 제6탄약창 장병과 가족 120여명을 초청해 가을 산사 나들이를 개최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고 사람들은 오욕(五慾) 속에 빠져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無常)을 느끼는데 집착하지 말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최

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한순간의 판단으로 일생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자장병들은 점심공양 후 전주 전북지역 포교사단 김석삼 사찰문화해설팀장의 사찰안내로 금산사를 참배했다. 이어 설법전에서 주지스님과 대화를 갖는 등 산사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지도법사 이상강(항적) 포교사는 “장병들이 부처님 품에서 무사히 군 생활할



10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장병 초청 가을 산사 나들이에서 원행 스님이 장병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수 있도록 군포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불교영산회 ‘전통불교의식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호산)는 10월 14~20일 곡성 무각사에서 ‘제10차 전통불교의식교육’을 개최했다.

영산회 이사장 행명 스님을 비롯한 회원과 신규 교육생 등 60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찰 상용의식

과 영산의식에 관한 집중교육 강의를 열었다.

교육은 첫날 행명 스님의 시련, 신중적법으로 시작해, 둘째날 불교의식에 대한 강의와 사물 및 바라 등이 진행됐다. 대령, 관육, 시식, 다비의식, 구병시식과 같은 제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불교의식은 불교 수행과 교리가 포함된 종합적인 수행 체계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 회원들은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회원은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화 카펠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펠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펠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라는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펠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라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펠라”는 넘어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여성용
• 특이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염은 칠패트 트리트먼트 거쳐 개발된 신소재 신발
• 인체공학에 힘 미끼이지 않는 눈송이 스텔라 밑창
• 가격 88,000원 • 여성용(색상 약간)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고강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도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투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득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만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윳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전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음!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것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석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



내용량 : 1백50ml×60포 2개입분 • 1병(1.5L)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광주불교환경연대 임상숙 사무국장

“불법 실천이 최고의 NGO운동”

빛고을 광주에는 사람향기, 꽃향기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불교 NGO 단체, 광주불교환경연대가 있다. 임상숙 사무국장은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 설립꾼이자, 환경의 길잡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존중·평등사상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행을 해 나가야죠.”

광주의 많은 불교 수행단체가 대부분 복자나 수행단체 중심이지만 광주 불교환경연대는 다르다. 창립 초기부터 지역 불교의 NGO단체로서 명확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4월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출범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생명, 생태, 환경을 애호하고 불교환경과 자연환경과 삶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체다.

포교가 무엇인지 묻자 임 사무국장이 단순명료하게 답했다. “자기가 맡은 일속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포교입니다. 그로인해 가정과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교가 됩니다. 꽃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멀리까지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임 국장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는 원력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가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짧은 기간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지역 사찰을 돌아다니며 환경보호·빈그릇운동 캠페인을 매월 두 차례 열고 있다. 환경보호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빈그릇운동 캠페인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한다.

5월에는 망월동 5·18구묘역에서 ‘꽃 진자리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열고 망월동 구묘역을 참배하는 시민들에게 차 공양을 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9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제1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쉼나누기’ 사업도 진행했다. 불교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1000kg의 쌀을 추수 즈음해 24개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임상숙 사무국장의 품품한 준비 속에 사랑생태기행도 열렸다.

출발 6개월을 갖 넓은 단체로 많은 사업들과 회원 확보라는 두 가지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임 사무국장은 “가장에는 늘 미안할 뿐”이라 말한다.

“불교환경운동 한다고 매일 바쁜 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 넓고 착한 남편과 사춘기를 힘겹게 지내는 중학교 2학년 딸 아이, 바쁜생활하고 책임감이 강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이들과 시골 한적한 곳으로 외식하러 갔던 임상숙 사무국장이 식당 근처에서 페미니즘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러 라 부산을 댄 적이 있었다. 그때 아이들은 “엄마는 늘 도덕적인 사람이야”라고 말했다고, 임 사무국장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스스로 부처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공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임상숙 사무국장의 말에는 환경운동이 곧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최고의 NGO운동이라는 신념을 보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상숙 사무국장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안되는 참음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음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걱정 없는 참음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음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되는 참음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음 부작용 걱정대, 난 여아!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참음,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음의 이익이 되는 참음
- ▶2006.8 20 KBS 삼시세끼 - 계절의 보식 참음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참음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음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